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의 잠재유형과 그 영향요인 검증

조기현*, 이선경**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의 8차에서 15차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의 잠재유형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에 대해 검증을 해보았다. 총 8년 동안의 패널자료에서 ‘사회계층의식’에 모두 응답한 65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잠재계층은 4개(중수준 유지계층, 감소 계층, 증가 계층, 저수준 유지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 계층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대한 예측 요인을 개인, 가구, 그리고 자원·심리 변인 세 측면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본인 학력, 배우자 유무, 출생지역, 자가 주택, 가구 총소득, 생활만족도에 따라 계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 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 서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계층구도의 변동을 겪으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경향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활동의 중추인 중산층의 비율이 1990년 74.47%에서 2000년 70.87%로 떨어졌으며, 2010년에는 67.33%에 이르러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국민일보, 2014.02.10.). 중산층의 비율이 20년 사이 이미 7%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기침체와 저성장애 따른 실업문제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에 직면했으며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커졌다. 이로 인해 ‘사회의 안전판’으로 불리는 중산층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산층은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만약 중산층의 비중이 이처럼 계속 낮아진다면 소비감소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빈부격차 확대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013년 8월, 정부는 중산층의 약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중산층 복원’을 핵심적 경제정책으로 정해 ‘고용률 70%를 통한 중산층 70% 달성’을 목표전략으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로 제시하였다(연합뉴스, 2013.08.29.). 하지만 중산층은 다양한 차원과 지표로 구분되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경제적, 객관적 수준으로만 인지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사회계층 소속감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소득 수준이나 직업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게 되면 계층 간 격차에 따른 사회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조동기, 2006; 최효미, 2008; Jackman and Jackman, 1973).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볼 때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본인이 속한 계층을 주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한 사람이 41.2%였고, 모든 계층에서 이와 같은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불일치 현상이 발견되었다(송한나 외., 2013). 따라서 객관적 지표에 따른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계층을 서로 비교해서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주관적 계층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관적 사회계층 의식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송한나 외., 2013; 이병훈, 윤정향, 2006). 나아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계층의식의 결정요인에 대한 횡단적 분석에 국한되어 있으며, 계층의식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여 증가 또는 감소형태를 파악하는 종단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층의식의 변화 유형 및 양상을 확인하고 변화에 있어서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중산층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해 살피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장혼합모형(Muthén & Asparouhov, 2007) 방법을 적용해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latent class)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잠재계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로짓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관적 계층의식이 유지되는 집단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여 향후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1. 중산층의 정의

중산층은 사전적인 의미로 ‘경제적 수준 또는 사회 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 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집단’으로 정의된다(원종학, 2013). 이러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중산층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소득, 학력, 직업, 자산, 사회의식 등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되며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정의는 없다. 2013년 4월 영국 ‘Great British Class Survey’에서는 7계층을 제안하며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중산층의 복합적 성격을 강조했다.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중산층의 개념도 계속 진화한다(윤희숙, 2013). 다면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써 사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산층은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적 지수를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분류와 귀속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의 정치사회적 변수를 포함하는 주관적 분류에 따라 나뉜 것을 볼 수 있다(최효미, 2008).

객관적 분류에서는 주로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 소득계층에 속한 집단을 중산층이라 정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나라별로 발전 단계에 따른 소득 수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이 없으며, 연구의 성격이나 학자에 따라 결정기준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절대소득 기준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국가의 경우에는 중간 소득의 일정 범위를 기준으로 삼는 상대소득 기준을 사용한다(윤희숙, 201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산층의 가구비중’은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으로써,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에 속하는 집단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유경준, 최바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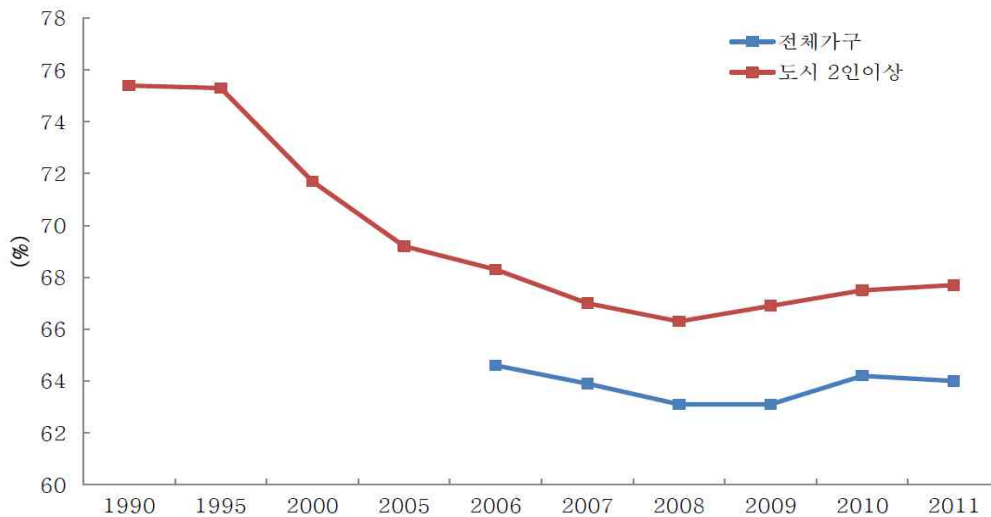
주관적 사회계층 의식은 사회계층의 위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거나 특정한 계층지위에 주관적인 일체감을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이병훈, 윤정향, 2006), 중간층 귀속 의식이 높을수록 안정된 사회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간층 귀속의식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병조, 2000). 계층을 파악하는데 있어 객관적 지표가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nneman & Cannon, 1987). 또한 최근에는 마르크스주의적 생산관계의 구조나 베버주의의 사회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공통경험과 정치·교육·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계층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안치민, 1992; 이병훈, 윤정향, 2006).

2. 중산층의 역할과 현황

사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산층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홍성민, 민주홍(1999)은 3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경제기반 유지에 필요한 소비의 중심이 되며, 양질의 노동력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기능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또 정치·문화 측면에서 사회를 주도하는 중간계층으로 중산층 유지는 전반적인 사회 안정에 핵심적 요소다. 셋째, 소비·여가생활, 교육태도, 정치의식, 사회여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산층은 국민 생활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같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중산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견고한 중산층의 존재는 사회 및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중산층은 유지시키며 신규 중산층의 육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위소득 50~150% 내 인구 비중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회는 중산층 비율이 점차 감소하다가 최근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윤희숙, 2013). 통계청 자료의 중산층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산층의 비중은 2006년 64.6%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3.1%로 줄어들었다. 이 후 2010년에 다시 증가하면서 2011년에는 64.0%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2006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1990년 중반까지 75%의 비중을 유지하다가 1998년 외환위기로 66.3%까지 감소해, 2011년에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67.7%에 머물러 있다. 이는 1980년대 1차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으로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산층이 증가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 탈공업화 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자영업 종사자가 이후 과잉공급으로 포화상태를 맞이하여 지속적으로 퇴출되는 등 산업구조 변화, 세계화, 기술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유경준, 최바울, 2008). 한편 빈곤층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과 상반되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전락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27] 중산층 비중

주: 중산층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150% 사이에 있는 가구

자료: 통계청(KOSIS), 원종학 (2013)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귀속의식을 파악한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이 1994년 70.7%에서 2005년 56%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나타났다(조용수, 윤상하, 2006). 또한 최효미(2008)에 따르면 주관적 지위가 객관적 지위보다 높은 경우는 5.3%였고, 객관적 지위보다 주관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9.0%로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객관적 지위에 비해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보였다. 여기서 중산층의 경제적 자원은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나 박탈감을 느끼는 것을 ‘중산층 압박(middle class squeeze)’이라 하는데, 자신의 소득이나 소비만으로 귀속의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경제학적 관점 이외의 심리적 변수도 고려되고 있다(윤희숙, 2013).

1992년 이후 20년간 소득 중위가구와 상위가구의 소득격차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심리적인 박탈감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상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다고 느낀다면 이는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심정적인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주관적 계층인식은 이후에 국민이 느끼는 고단함의 지표로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체감되는 어려움이나 주관적 계층인식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3. 사회계층의식 영향요인

계층의식의 형성과 변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여러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결과가 축적되었다. Vanneman & Cannon (1987)의 객관적인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관관계 연구, 이에 대한 전제로 이루어진 국가 간 비교 연구(Vanneman, 1980), 인종 간 비교 연구(Zingraff & Schulman, 1984), 그리고 성별 간 비교연구(Davis & Robinson, 1988; Simpson, Stark & Jackson, 1988) 등이 진행되면서 주관적 계층의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로 관심이 이어져왔다. Jackman & Jackman(1983)은 베버의 사회계층 지위지표로 쓰이는 직업, 소득수준, 교육수준 순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득>교육>직업(김경동, 최태룡, 1983; 김병조, 2000; 조동기, 2006), 소득>직업>교육(장상수, 1996), 교육>소득>직업(Yoon & Seok, 1996) 순으로 연구자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서구 사회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는 교육수준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송한나 외., 2013). 즉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경우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고,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부모 학력과 직업도 가정 배경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성별, 결혼여부, 연령대 및 출신지역 등의 개인 변인 역시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s & Robinson(1988)과 Simpson et al.,(1988)은 성 특수모형을 제시하여 남녀 간에 계층의식 결정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검증하였고, 국내에서도 김병조(2000)와 장상수(1996)는 성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기혼한 여성의 경우 계층의식을 판단할 때 배우자의 속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중산층 귀속의식에 대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병훈, 신재열, 2009; 장상수, 1996; 최효미, 2008). 차중천(1987)과 이병훈, 윤정향(2006)은 계층이동 기회 및 생활경험의 차이로 인해 출신 지역에 따른 계층의식의 차이가 유의한 점을 우리 사회의 특수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가구 변인 또한 개개인의 속성 못지않게 주관적 계층의식 형성과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은 한국 사회에서 재산으로 인식되어 경제적 생활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사회계층 구조를 분석하는데 포함되며(신광영, 2003), 자가 주택 거주자보다 전세·월세 주택의 거주자들이 낮은 사회계층의식을 가질 승산이 높게 나타났다(이병훈, 윤정향, 2006). 또한 중위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자가 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주관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다고 느끼기 때문에(최효미, 2008) 한국에서 자가 주택 소유여부와 부동산 관련 지표는 개인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가구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가구 내 취업가원

수는 연령대가 높은 가구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계층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김진욱, 정은철, 2004; 원중학, 2013; 이재경, 1992).

고용상태 및 환경에 해당하는 취업상태(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 무급 등)의 경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이동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경우 상용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괜찮은 일자리 여부가 계층의 이동을 설명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원중학, 2013). 또한 전문 관리직 종사자는 중위소득 계층에 속하면서 본인을 중산층으로 인지하였다(최효미, 2008). 이에 따라 일자리 형태와 직종은 계층의식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생활양식, 소비패턴, 문화활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한나 외., 2013; 장미혜, 2002; 차중천, 1997; Yoon & Seok, 1996). 이병훈, 윤정향(2006)의 횡단, 중단분석에서는 생활만족도가 계층의식에 대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송한나 외.,(2013)는 문화소양, 문화지식, 그리고 문화 예술교육 경험이 계층의식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문화자본과 문화생활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생활여건과 사회관계적 측면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나 행복지수 같은 심리 변인들과 문화자본 관련된 요인들이 고려되고 있다(남은영, 최유정, 2008; 송한나 외., 2013; 조동기, 2006; 이병훈, 윤정향, 2006).

4. 연구문제

이처럼 다양한 차원에서의 여러 지표들이 주관적인 계층의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의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연구문제2: 잠재계층 유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의

8차에서 15차까지의 자료이다. 노동패널자료는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의식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패널자료에서 주관적인 사회계층 소속감은 2차 년도부터 조사되고 있으나, 2차 년도는 4점 척도 ‘(1)상층 (2)중상층 (3)중하층 (4)하층’ 로 응답되었고 3차와 5차 년도에는 5점 척도 ‘(1)상류층 (2)중상류층 (3)중류층 (4)중하류층 (5)하류층’ 로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나누어 질문하였다. 하지만 8차 년도에서부터 현재 15차 년도까지는 6점 척도 ‘(1)상상 (2)상하 (3)중상 (4)중하 (5)하상 (6)하하’ 로 응답되어,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8차년도 이후의 자료만 사용하였다. 총 8년 동안의 패널자료에서 종속변수인 ‘사회계층의식’에 모두 응답한 659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여자는 3656명(55.4%)이고 남자는 2938명(44.6%)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측 변인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1차~7차년도의 자료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2. 주요 변수

가. 개인 관련 변인

예측요인 중 개인 관련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수준, 혼인상태, 출생지역이 포함되었다. 먼저 성별은 여자를 기준집단으로 하여 ‘여자=0, 남자=1’로 더미 코딩으로 처리하였다. 연령은 8차년도(2005년) 조사 당시의 나이를 나타내며, 15세부터 90세까지의 빈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에 따른 계층의식 비교를 위해 청년기(15세~30세), 장년기(31~45세), 중년기(46~60세), 노년기(61세 이상)로 연령집단을 구분하여 보았다. 종속변수에 대한 연령집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빈도수가 가장 많은 장년기 연령집단을 준거로 삼고 나머지 연령집단에 대해 더미 코딩으로 처리하였다.

본인의 학력수준은 ‘무학/미취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전문대학=5, 4년제 대학=6, 대학원 석사=7, 대학원 박사=8’의 기준에 따라 입력되었다. 따라서 학력수준은 서열변수로 보고 별다른 코딩 처리는 하지 않았다. 혼인상태를 묻는 문항은 8차년도(2005년) 조사 당시의 현황을 묻고 있으며, 원자료에서는 ‘미혼, 기혼(배우자 있음), 별거중, 이혼, 배우자 사망’의 다섯 범주로 설문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응답의 빈도가 고르지 않고 일부 응답은 극소수임을 감안하여, 간명한 비교를 위해 ‘기혼(배우자 있음)=0, 나머지 응답=1’로 더미 코딩으로 처리하였다. 즉, 빈도가 가장 많은 기혼(배우자 있음) 집단을 준거로 하여 배우자가 없는 집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생지역은 원자료에서 16개 시도 및 북한, 해외를 포함하여 총 18개의 범주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병훈, 윤정향(2006)의 구분을 참고하여 ‘수도권=1, 영남권=2, 호남권=3, 강원/충청권=4, 기타(제주/북한/해외)=5’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고, 수도권을 준거 집단으로 삼아 더미 코딩으로 처리하여 범주 집단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개인 관련 변인 중 고용상태 및 지위와 관련된 변인은 미취업자, 임금근로자, 사업자 등 고용유형과 환경이 상이하고 배경이 다양해 계층의식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설정하기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시켰다.

나. 가구 관련 변인

개인 변인 뿐 아니라 가정배경이라 할 수 있는 가구의 특성 및 차이 역시 주관적 계층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변인으로서 주거형태, 작년 한해 가구 총소득,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영향요인으로 보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우선, 주거형태에 대한 정보는 8차년도(2005년) 조사 당시의 문항에 대한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자료에서는 ‘자가, 전세, 월세, 기타’의 네 가지 범주로 응답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응답의 빈도분포와 특성을 고려해 ‘자가=0, 전세/월세/기타=1’로 더미 코딩해서 처리하였다. 따라서 조사 당시에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화유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가구 총소득은 한 해 동안 가구의 총 근로소득 및 금융자산에 따른 이자나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 그리고 임대료 및 부동산 매매차익 등에 따른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을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가구 총소득은 소득구간에 따라 응답빈도수 및 비율을 고려해 7개의 범주 구간으로 구분하였는데, ‘1000만원 미만=1, 1000~2000만원 미만=2, 2000~3000만원 미만=3, 3000~4000만원 미만=4, 4000~5000만원 미만=5, 5000~6500만원 미만=6, 6500만원 이상=7’로 각각의 범위를 정하고 서열척도로 간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정 관련 변인 중 부모학력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영향을 검증해 보기로 하였다. 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대한 설문은 4차년도(2001년) 신규 조사자부터 적용되어 그 이전 패널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으며,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가장 및 가구주로서 아버지의 경제적 역할 및 영향이 가정 배경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계층의식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패널 1차~7차 설문의 신규 조사자 자료를 사용하였다.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전문대=5, 대학/대학교=6, 대학원 이상=7’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열척도로 간주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인 및 가구 변인들에 대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범주와 빈도수 및 비율을 요약하였으며, 가구 변인 중 가구 총소득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대한 응답에서는 결측치가 약 5~7%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범주형 변수 구성 및 빈도수

	변수 설명	범주구분	빈도수(비율)	결측치
개인 변인	성별	여자	3565명 (55.4)	없음
		남자	2938명 (44.6)	
	연령집단	청년기(15~30세)	1121명 (17.0)	없음
		장년기(31~45세)	2282명 (34.6)	
		중년기(46~60세)	1904명 (28.9)	
노년기(61세 이상)		1287명 (19.5)		
학력수준	무학 / 미취학	314명 (4.8)	4명(.1)	
	초등학교	1084명 (16.4)		
	중학교	974명 (14.8)		
	고등학교	2351명 (35.7)		
	2년제 대학 / 전문대학	686명 (10.4)		
	4년제 대학	1051명 (15.9)		
	대학원 석사	113명 (1.7)		
대학원 박사	17명 (.3)			
혼인상태	기혼(배우자 있음)	4868명(73.8)	없음	
	미혼 / 별거 / 이혼 / 배우자 사망	1726(26.2)		
출생지역	수도권	1516명(23.0)	14명(.2)	
	영남권	2200명(33.4)		
	호남권	1410명(21.4)		
	강원 / 충청권	1315명(19.9)		
	제주 / 북한 / 해외	139명(2.1)		
가구 변인	주거형태	자가주택	4366명(66.2)	없음
		전세 / 월세 / 기타	2228명(33.8)	
	가구총소득 구간	1000만원 미만	785명(11.9)	485(7.4)
		1000~2000만원 미만	1271명(19.3)	
		2000~3000만원 미만	1311명(19.9)	
		3000~4000만원 미만	1111명(16.8)	
		4000~5000만원 미만	662명(10.0)	
		5000~6500만원 미만	524명(7.9)	
		6500만원 이상	445명(6.7)	
	아버지 교육수준	무학	1781명(27.0)	376(5.7)
초등학교		1957명(29.7)		
중학교		986명(15.0)		
고등학교		1070명(16.2)		
전문대학		92명(1.4)		
대학 / 대학교		296명(4.5)		
대학원 이상		36명(.5)		
총 표본수	6594명(100%)			

다. 자원 · 심리적 변인

예측 변인과 관련해서 생활여건(가구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자원 · 심리적 변인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생활여건 등의 경제적 자원이 뒷받침되고 또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을수록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원자료에서는 생활여건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6개의 측정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1, 만족=2, 보통=3, 불만족=4, 매우 불만족=5’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역 코딩으로 처리하여 높은 응답을 나타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차년도(2005년)와 15차년도(2012년) 조사 자료에서 생활여건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대한 6개의 문항의 평균값으로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자원 · 심리적 변수를 각각 생성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인 8차~15차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모두 응답한 표본에 대해서 8차년도 시점 즉, 초기 시점의 생활 만족도가 계층의식의 변화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15차년도의 생활 만족도 평균값에서 8차년도의 생활 만족도 평균값의 차이를 계산해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변수를 새로 산출하였다. 생활 만족도 변화가 양의 값을 가지면 8차 년도에 비해 15차 년도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면 생활 만족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시점인 8차 년도의 생활 만족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점인 15차 년도와 차이를 통해 생활 만족도의 변화 정도에 따라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화 유형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라. 주관적 사회계층 의식

주관적 계층의식의 측정문항은 8차(2005)년도 이후부터는 6점(상상=1, 상하=2, 중상=3, 중하=4, 하상=5, 하하=6) 척도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료에서는 높게 응답할수록 계층의식이 하층에 속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해석상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이를 역 코딩 처리하였으며, 높은 응답을 나타낼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평균값은 약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는 표본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일 뿐, 모든 개인이 이러한 평균 변화값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서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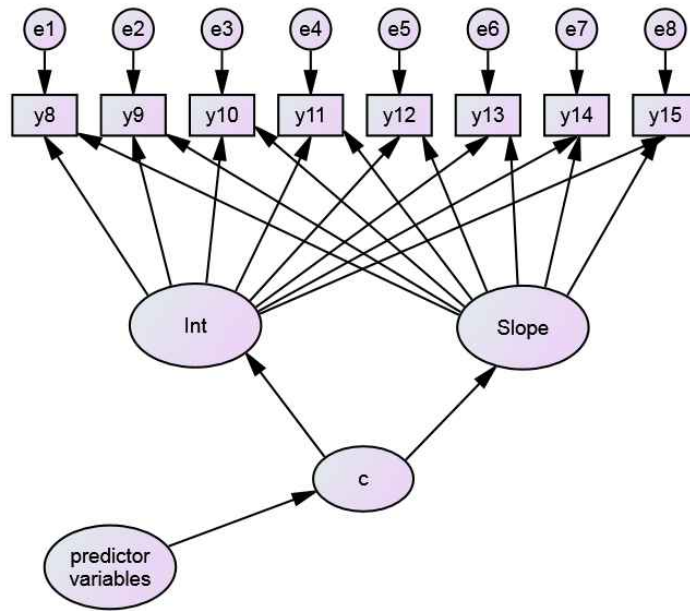
<표 2> 주관적 계층의식 기술통계(n=6594)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2.66	2.66	2.69	2.87	2.87	2.86	2.84	2.80
표준편차	1.005	.967	.962	.930	.967	.922	.902	.869

3. 분석 방법

8차~15차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의 유형이 구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종단연구에 접목한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은 다중그룹성장모형과 유한혼합모형을 기반으로 발전한 모형분석 기법이다(조아미, 신태수, 2012). 아래의 [그림 2]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을 8번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이는 두 가지 잠재요인(초기치, 변화율)에 따라 결정된다. 응답자들의 초기치(Int)와 변화율(Slope)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유형의 집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감소하는 변화를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집단은 계층의식이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변화유형에 따른 집단(잠재계층)이 여럿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만약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전체 표본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초기치와 변화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 초기치와 변화율에서의 차이가 유의하다면 이에 따라 변화의 유형(잠재계층)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서 나타난 잠재계층(c)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잠재계층이 몇 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잠재계층(c) 유형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predictor variable)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로짓 분석을 적용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 분석을 위해 Mplus 7.1(Muthén & Muthén, 2012)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최대우도추정법(MLE)을 적용하였다. 로짓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해 예측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2] 성장혼합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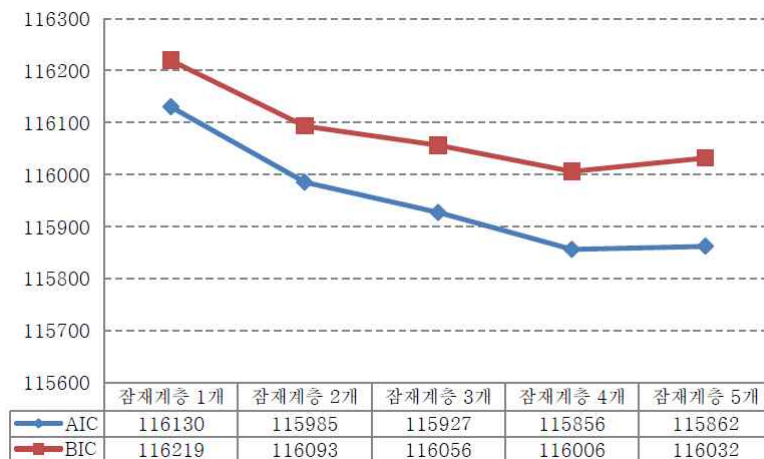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잠재계층 분류

주관적 사회계층 의식의 변화에 따른 유형이 몇 개인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추가해 가며 모형 비교를 시도하였다. 정보지수를 나타내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는 값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을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LMR(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는 잠재계층 수를 늘려가면서 모형을 비교할 때, k개 모형을 k-1개(이전) 모형과 비교해 카이제곱의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만약 검증에 대한 p값이 유의하면 k-1개(이전) 모형이 기각되어 k개 모형을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분류의 질(Entropy)을 참고하였는데, 이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대략 .8 이상이면 좋은 분류라고 할 수 있다.

<표 3> 모형 비교

잠재계층	AIC	BIC	SABIC	LMR	BLRT	Entropy
1개	116130	116219	116177			1.0
2개	115985	116093	116042	p<.001	p<.001	.542
3개	115927	116056	115996	p<.001	p<.001	.732
4개	115856	116006	115936	p<.001	p<.001	.623
5개	115862	116032	115953	.2641	p<.001	.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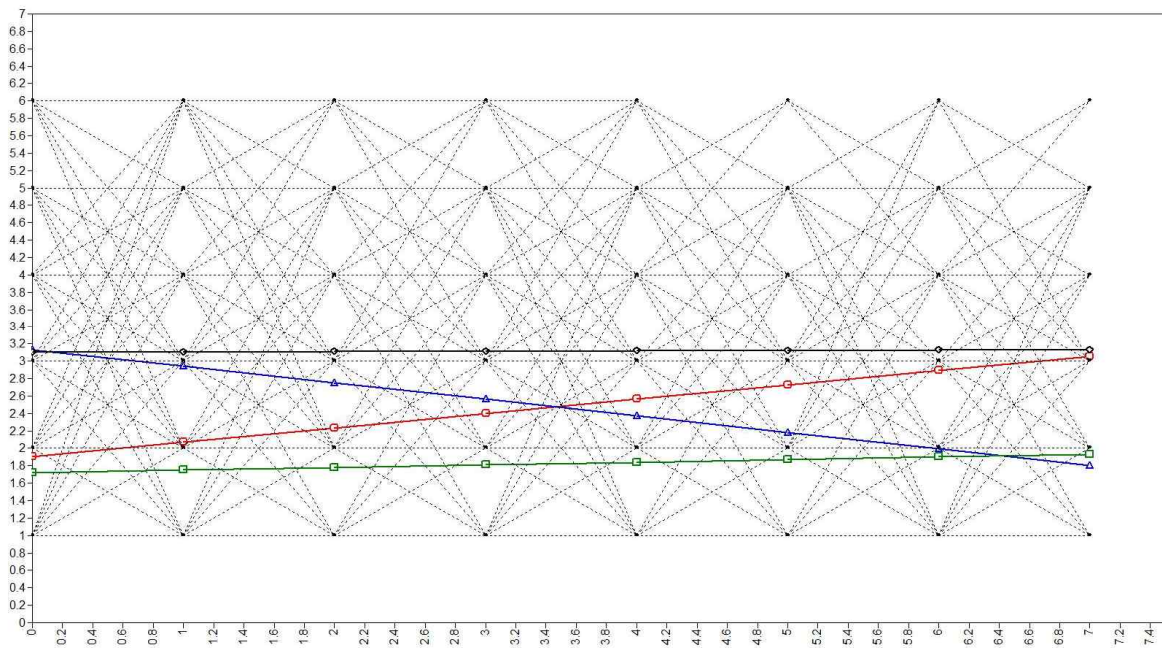


[그림 3] 정보지수 비교

위의 [그림 3]은 정보지수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나타내고 있다. 요인분석에서 스크리도표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잠재계층 수의 판단이 가능하다(노언정, 홍세희, 2012). 따라서 정보지수, 모형검증 및 분류의 질에 대한 비교를 종합해서 잠재계층의 수는 4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잠재계층의 특성을 보면 1계층은 초기치가 약 3.1 이고 변화율이 거의 0에 가깝다. 즉 6점 척도의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중간 수준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중수준 유지 계층으로 명명했으며 전체 표본에서 가장 많은 71%가 여기에 속했다. 2계층은 초기치는 중간 수준이지만 변화율의 감소가 유의했으므로 감소 계층으로 명하였고, 전체 표본의 2.1%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3계층은 증가 계층, 그리고 마지막 4계층은 저수준 유지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시간에 따른 개별 변화 패턴과 잠재계층의 추정된 변화선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표 4> 잠재계층 유형

잠재계층	초기치	변화율	빈도수(비율)	계층명
class-1	3.099	.004	4679(71.0%)	중수준 유지 계층
class-2	3.130	-.189	141(2.1%)	감소 계층
class-3	1.906	.164	725(11.0%)	증가 계층
class-4	1.719	.03	1049(15.9%)	저수준 유지 계층



[그림 4] 잠재계층 그래프

2. 영향요인 검증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잠재계층이 4가지 유형(중수준 유지, 감소, 증가, 저수준 유지)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개인, 가구, 자원·심리적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여 예측 변인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예를 들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저수준 유지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거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수준 유지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감소나 증가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4개의 잠재계층이 되는데, 이는 범주형 변수이므로 종속변수가 다범주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의 준거를 중수준 유지, 저수준 유지 계층인 경우로 각각 설정하여 두 번의 로짓 모형을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 해석하였다. 절편만 있는 경우에 비해 예측변인을 모두 투입한 최종모형의 카이제곱 감소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예측 변인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가 있다.

<표 5> 모형의 적합도

모형	모델맞춤기준	우도비검정		
	-2 로그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만	9.228E3			
최종모형	6.813E3	2.415E3	45	.000

가. 중수준 유지 계층(준거)

잠재계층 분류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중수준 유지 계층을 준거로 삼아 나머지 세 계층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정하였다. 중수준 유지 계층에 비해 감소 계층(중간 수준 초기치에서 유의하게 감소)에 대해서는 <표 6>의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30세 이하 청년층(연령_d1)인 경우 기준 범주인 장년층(31-45세)에 비해 중수준 유지보다 감소 계층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중간층에 대한 소속감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청년층이 아직 미래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는 반면, 장년층은 여러 번 좌절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중수준 유지보다 감소 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감소 계층보다 중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중수준 유지보다 감소 계층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배우자가 없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관적 계층의식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배우자가 없음은 미혼, 이혼, 별거 및 사망이 모두 포함된 점을 감안해서 이를 해석할 때 주의를 요구한다.

출생지역이 호남권(출생지_d2)인 경우, 수도권 출생자에 비해 중수준 유지보다 감소계층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호남권 출신이 수도권에 비해 계층 귀속의식이 낮다는 연구결과(이병훈, 윤정향, 2006)와 약간 불일치하지만, 비교 계층이 저수준이 아닌 감소 계층임을 감안한다면 선행 연구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는 아니며 따라서 보다 면밀한 추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구 관련 변인에서는 유의한 예측 변수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자원·심리적 변인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시점의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중수준 유지보다 감소 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차~15차 기간 동안의 생활만족도 변화가 높아질수록(증가할수록) 중수준 유지보다 감소 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는데 이는 매우 상식적인 결과이다. 즉, 생활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층 의식이 낮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표 6> 중수준 유지 vs 감소

구분	예측 변인	B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개인 변인	성별_남	-.083	.201	.169	1	.681	.921
	연령_d1	-.724	.326	4.939	1	.026	.485
	연령_d2	-.082	.263	.097	1	.755	.921
	연령_d3	-.113	.332	.115	1	.734	.893
	학력수준_본인	-.274	.098	7.894	1	.005	.760
	배우자_없음	.874	.227	14.892	1	.000	2.397
	출생지_d1	.119	.257	.215	1	.643	1.126
	출생지_d2	-.938	.367	6.522	1	.011	.392
	출생지_d3	.343	.270	1.612	1	.204	1.409
	출생지_d4	.112	.778	.021	1	.885	1.119
가구 변인	자가주택_아님	.225	.215	1.092	1	.296	1.252
	가구_총소득_구간	-.088	.062	1.998	1	.158	.916
	학력수준_아버지	.144	.082	3.095	1	.079	1.155
자원·심 변인	생활만족도_8차	-2.046	.281	53.096	1	.000	.129
	생활만족도_변화	-2.068	.212	95.257	1	.000	.126

다음으로 중수준 유지 집단에 비해 증가 집단(초기치는 낮지만 변화율이 유의한 계층)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7> 결과가 나타났다. 노년층(연령_d3)인 경우 기준 범주인 장년층(31-45세)에 비해 중수준 유지보다 증가 계층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어 계층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유지되거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때 이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인 학력이 높을수록 중수준 유지보다 증가 계층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데, 이는 학력이 계층의식 증가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 학력이 높으면 계층 의식이 이미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계층의식이 낮았다가 서서히 높아지는 증가 계층에 속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학력이 계층의식을 높이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초기치가 낮은 저수준 유지 집단과 증가 집단을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학력과 마찬가지로 <표 7>에서 유의하다고 하여도 해당 변인이 계층의식을 높이거나 낮출 것으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수준 유지와 증가 계층은 초기치가 서로 다르면서 동시에 변화율도 다르다. 따라서 해당 변인이 주관적 계층의식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7> 중수준 유지 vs 증가

구 분	예측 변인	B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개인 변인	성별_남	.062	.097	.412	1	.521	1.064
	연령_d1	-.209	.150	1.936	1	.164	.811
	연령_d2	-.016	.129	.015	1	.903	.984
	연령_d3	-.501	.176	8.069	1	.005	.606
	학력수준_본인	-.270	.049	30.122	1	.000	.763
	배우자 없음	.711	.116	37.703	1	.000	2.035
	출생지_d1	.337	.131	6.652	1	.010	1.401
	출생지_d2	.116	.143	.659	1	.417	1.123
	출생지_d3	.028	.151	.034	1	.853	1.029
가구 변인	출생지_d4	.989	.346	8.176	1	.004	2.690
	자가주택_아님	.695	.101	46.949	1	.000	2.003
	가구_총소득	-.361	.035	104.576	1	.000	.697
	학력수준_아버지	-.041	.045	.826	1	.364	.960
자원·심 변인	생활만족도_8차	-1.335	.141	89.267	1	.000	.263
	생활만족도변화	.078	.110	.510	1	.475	1.081

<표 8>의 결과에서 30세 이하 청년층(연령_d1)은 기준 범주인 장년층(31-45세)에 비해 중수준 유지보다 저수준 유지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수준 유지보다 저수준 유지 계층이 될 확률에 있어서 청년층의 승산은 장년층 승산의 55.3% 이다. 즉, 30세 이하의 청년층은 계층 의식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무르는 저수준 유지 계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인의 학력수준, 가구 총 소득구간, 초기 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변화가 높을수록 중수준 유지보다 저수준 유지 계층이 될 가능성이 낮다. 반면, 배우자가 없거나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 중수준 유지보다 저수준 유지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특히 영남권 출신인 경우(출생지_d1) 수도권 출신에 비해 계층 의식이 중수준 유지보다 저수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8> 중수준 유지 vs 저수준 유지

구 분	예측 변인	B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개 인 변 인	성별_남	.140	.105	1.776	1	.183	1.151
	연령_d1	-.593	.190	9.700	1	.002	.553
	연령_d2	.133	.139	.915	1	.339	1.142
	연령_d3	-.157	.177	.784	1	.376	.855
	학력수준_본인	-.523	.056	88.702	1	.000	.593
	배우자 없음	.947	.119	63.339	1	.000	2.577
	출생지_d1	.547	.143	14.597	1	.000	1.727
	출생지_d2	-.184	.162	1.287	1	.257	.832
	출생지_d3	.084	.162	.270	1	.603	1.088

	출생지_d4	.713	.383	3.457	1	.063	2.040
가 구 변 인	자가 주택 아님	.935	.110	71.654	1	.000	2.547
	가구간 총소득	-.475	.041	133.518	1	.000	.622
	학력수준_아버지	-.099	.052	3.605	1	.058	.906
자 원·심 리 변 인	생활만족도_8차	-3.617	.165	481.888	1	.000	.027
	생활만족도변화	-1.745	.123	202.171	1	.000	.175

나. 저수준 유지 계층(준거)

저수준 유지 계층을 기준으로 하여 감소 및 증가 계층과 비교해서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중수준 유지 계층과의 비교는 앞의 결과(중수준 유지 vs 저수준 유지)와 중복되므로 제외하였다. 먼저 <표 9>의 결과에서 본인 학력이 높을수록 저수준 유지에 비해 감소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다고 해서 계층 의식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학력이 높으면 계층 의식이 지속적으로 낮은 저수준 유지 집단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치와 변화율이 서로 다른 저수준 유지와 감소 계층을 비교해서 해석할 때는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9> 저수준 유지 vs 감소

구 분	예측 변인	B	표준오차	Wald	자 유 도	유의 활 률	Exp(B)
개 인 변 인	성별_남	-.223	.215	1.071	1	.301	.800
	연령_d1	-.131	.360	.132	1	.716	.877
	연령_d2	-.215	.283	.578	1	.447	.807
	연령_d3	.044	.356	.015	1	.902	1.045
	학력수준_본인	.249	.107	5.454	1	.020	1.283
	배우자 없음	-.073	.238	.093	1	.761	.930
	출생지_d1	-.428	.278	2.365	1	.124	.652
	출생지_d2	-.753	.388	3.778	1	.052	.471
	출생지_d3	.259	.297	.759	1	.384	1.295
	출생지_d4	-.601	.818	.540	1	.462	.548
가 구 변 인	자가주택 아님	-.710	.229	9.659	1	.002	.492
	가구간 총소득	.387	.071	29.534	1	.000	1.473
	학력수준_아버지	.243	.092	7.015	1	.008	1.275
자 원·심 리 변 인	생활만족도_8차	1.571	.305	26.596	1	.000	4.813
	생활만족도변화	-.323	.228	2.011	1	.156	.724

마지막으로 저수준 유지와 증가 계층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초기치에 있어서는 두 계층이 비슷하지만 이후 변화율에서 한 계층은 낮게 유지되는 반면, 다른 계층은 증가하는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증해 보았다. <표 10>을 보면 본인의 학력수준, 가구 총 소득구간, 초기 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증가가 높을수록 저수준 유지보다는 증가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이 네 가지 변인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 의식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무르는 저수준 유지 계층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표 10> 저수준 유지 vs 증가

구 분	예측 변인	B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개인 변인	성별_남	-.078	.123	.402	1	.526	.925
	연령_d1	.383	.213	3.252	1	.071	1.467
	연령_d2	-.149	.162	.837	1	.360	.862
	연령_d3	-.344	.213	2.600	1	.107	.709
	학력수준_본인	.253	.064	15.457	1	.000	1.288
	배우자 없음	-.236	.135	3.070	1	.080	.790
	출생지_d1	-.209	.168	1.554	1	.213	.811
	출생지_d2	.300	.189	2.524	1	.112	1.350
	출생지_d3	-.056	.194	.084	1	.772	.945
	출생지_d4	.276	.409	.457	1	.499	1.318
가구 변인	자가주택_아님	-.240	.127	3.561	1	.059	.786
	가구 총소득	.115	.049	5.502	1	.019	1.121
	학력수준_아버지	.058	.060	.931	1	.335	1.060
자원·심 변인	생활만족도_8차	2.282	.183	156.044	1	.000	9.801
	생활만족도변화	1.823	.143	161.535	1	.000	6.191

V. 결론 및 논의

2005년~2012년의 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의 잠재유형과 영향 요인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관적 계층의식의 평균은 8년치 모두 2.66~2.87로 6점 척도에서 3점(중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간 이하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화에 따른 잠재유형은 4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율에 따라 중수준 유지 계층(71%), 저수준 유지 계층(16%), 증가 계층(11%), 감소 계층(2%) 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체의 87%는 계층의식이 유지되는 반면, 13%에서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준 유지 계층과 저수준 유지 계층의 비교에서 유의한 예측 요인은 연령, 본인 학력, 배우자, 자가 주택, 가구 총소득, 생활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낮거나 본인 학력·가구소득·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저수준 유지 계층에 속할 확률은 낮았다. 따라서 본인 학력이나 가구소득이 주관적 계층 의식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예측 요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배우자가 없거나 자가 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저수준 유지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

다.

중수준 유지 계층과 감소 계층의 비교에서는 연령·본인 학력·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소 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 따른 차이를 자세히 보면 청년층에 비해 장년층이 감소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무거워지고 현실에서의 여러 좌절을 겪으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점차 낮아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애 구간 중 장년기는 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게 형성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소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한국 사회의 1인 가구 및 이혼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배우자가 없음으로 인한 계층의식 하락 문제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저수준 유지 계층과 증가 계층의 비교에서는 본인 학력·가구 총소득·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증가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에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은 수준에 있더라도 학력이 높으면 향후에 계층의식이 증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학력을 통한 계층의 상승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2005년 이후 한국 사회의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화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계층에 따른 갈등 및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동, 최태룡. (1983).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계급구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1-30.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제 34집. 241-268.
- 김진욱, 정의철. (2004) 가구특성에 따른 소득계층 변화, *노동경제논집*, 제27권(2). 91-115.
- 남은영, 최유정. (2008).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여가 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2), 57-84.
- 노언경, 홍세희. (2012).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3), 51-76.
- 송한나, 이명진, 최섯별. (2013). 한국 사회의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 의식간 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 36권, 제 3호, 97-119.
- 신광영. (2003). [특집/계급과 불평등] 한국의 사회계급과 불평등 실태-서베이 자료 분석을 넘어서. *경제와사회*, 59, 32-54.
- 안치민. (1992). 한국사회의 계급구조화 연구, *한국사회학*, 제 26집(여름호). 59-81.
- 원종학, (2013). 소득계층 이동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재정포럼*, 206, 6-14.
- 유경준, 최바울. (2008).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제2권 제1호, 84-96.
- 윤희숙, (2013). 중산층 현황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전망에의 시사점, *KDI 경제전망*, 제30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35-51.
- 이병훈, 신재열. (2009). 기혼 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제 76호, 205-232.
- 이병훈, 윤정향. (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제 70호, 111-140.
- 장미혜. (2002). 한국사회에서 사회계급별 소비양식의 차이. *경제와 사회*, 53, 201-231.
- 장상수. (1996). 한국 사회에서의 주관적 계층 위치. *사회와역사*, 49, 180-212.
- 조동기. (2006). 중산층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89-109.
- 조아미, 신태수. (201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2), 161-184.
- 조용수, 윤상하. (2006). 양극화시대, 중산층은 안전한가, *LG 주간경제*, LG 경제연구원.
- 차종천. (1987). 지역주의가 한국계층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 시민의 출신지역별 지위획득과 사회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21집. 69-91.
- 최효미, (2008). 중산층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분석: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사례. *노동리뷰*, 제46호, 한국노동연구원, 73-84.
- 홍성민, 민주홍. (1999). IMF 시대의 중산층 약화 실태 및 재구축 방안.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 Davis, N., and Robinson, R. (1988). Class identification of men and women in the 1970s and 198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1). 103-112.
- Jackman, M., and Jackman, R. (1973). An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569-582.
- Muthén B., & Asparouhov T.(2007). Growth mixture modeling: Analysis with non-Gaussian random effect. In Fitzmaurice, G., Davidian, M., Verbeke, G. & Molenberghs, G. (Eds.),

- Advances in Longitudinal Data Analysis: Chapman & Hall/CRC Press.
- Simpson, I.H., Stark, D., and Jackson, R. (1988). Class identification processes of married, working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2). 284-293.
- Vanneman, R. D. (1980). US and British perceptions of cla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69-790.
- Vanneman, R., and Cannon. L. (1987). *The American Perception of Clas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Yoon, J., and Seok, H. (1996). Conspicuous consumption and social status in Korea: an assessment of reciprocal effec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5(2). 333-354.
- Zingraff, R., & Schulman, M. D. (1984). Social bases of class consciousness: A study of southern textile workers with a comparison by race. *Social Forces*, 63(1), 98-116.
- 국민일보 2014.02.10. [중산층 기준이 바뀐다] 국내 중산층 얼마나 줄었나...1990년 74%→2010년 6 7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018253&cp=nv>
- 연합뉴스 2013.08.29. 박대통령 "중산층복원·창조경제구현 경제정책 핵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8/29/0200000000AKR20130829060851001.HTML?from=search>